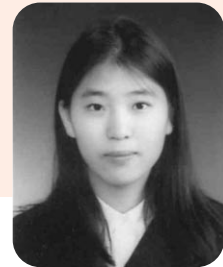


신입생 세미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초교육원에서는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에 갓 들어온 신입생들이 보다 쉽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호 <열린지성>에서는 올해로 네 학기 째 운영되고 있는 신입생 세미나에 대해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손유정 (인문계1 05학번)



신입생만의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었던 색다른 수업

신입생 세미나가 좋은 점은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다.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형탁자에 앉아서 모두의 얼굴을 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그만큼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거리를 좁혀서 자유로운 피드백을 할 수 있었다. 인원이 적으니 각자가 쓴 글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고 토론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1학년 때 전공이 없어서 지도교수 외에 다른 선생님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선생님과 같이 식사도 여러번 하고 MT나 술집을 가서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었다.

내가 들었던 세미나는 「파우스트」 강독이 조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좋았다. 「파우스트」라는 고전은 매우 유명하여 현재에도 그것을 차용한 결과물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 역시 파우스트를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파우스트가 희곡인 만큼 조원들끼리 역할을 정해서 하나씩 읽어가니까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었고, 서로 묻고 토론을 하면서 혼자 읽었을 때 맛볼 수 없던 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야식도 먹으며 토론하는 과정에서 조원들끼리 많이 친해질 수 있었다.

이 수업에는 특별히 선생님의 집필실인 여주로 MT를 가서 연극과 글 낭독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선생님의 집필실에서 연극을 하면서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조원들의 끼를 발산하였다. 메피스토펠레스가 랩을 하기도 했고 미친 그레첸이 춤을 추기도 하였다. 화로에 고구마도 구워먹고 뜨거운 온돌방에 엉덩이를 데이기도 하면서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은 '신입생세미나'라는 커리큘럼이 취하고 있는 S/U 성적처리방식이다. 성적평가가 S/U이므로 다른 수업에 비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어서, 실제로는 학기 말에 출석률이 떨어지고 과제준비나 수업준비가 많이 부실해졌다. 물론 학교 당국에서는 S/U의 성적처리방식을 통해서 학점에 차이지 않고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좌를 마련한 것이겠지만 '부담'이 없음으로 해서 '부담'이 있는 수업들에 세미나가 뒷전이 되어 소홀하게 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설 과목이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른 홍보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채워진다면 이 세미나는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동시에 '신입생'만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기존 수업과는 다른 신선함

나는 짧은 기간 수업 받고 증강하면 그것으로 끝인 대학 수업에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교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신입생 세미나를 듣게 되었다. 내 전공에 대해 폭넓게 알고 싶은 마음에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의 세미나를 선택했다.

세미나는 그날 주제에 대해 한 조각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고 끝나면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면서 진행된다. 세미나 내용 가운데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지루하지 않게 수식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처음 발표식 수업을 한다고 할 때에는 긴장도 되고 부담을 많이 느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표 준비와 발표 방법을 배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부담감도 덜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세미나 진행 방식이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수업은 그저 딱딱한 토론식 수업이 아니다. 선생님과 눈을 맞춰가며 세미나를 하는 것은 다른 수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멀게 느껴지던 선생님이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또한 수업 외적인 내용들, 1학기 생활이나, 대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 서로의 사정을 들어보며 웃고 함께 생각했다. 더 좋은 대학생활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같이 세미나를 듣는 사람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점이다. 조별 발표를 할 때에도 같은 과 사람들끼리 하게 되고 세미나가 끝나면 흩어지게 된다. 나중에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 기회를 통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세미나를 할 때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으면 한다. 예를 들어 동영상 파일을 보거나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중에 직접 견학을 간다는 예정은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 실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항상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다른 수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학점에 구애 받지 않고 선생님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세미나는 숨을 트이게 해준다. 사실 세미나를 아직 다 하지 않았기에 앞으로의 세미나가 더 기대된다. 새로 만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내 전공에 대해 더 알아보며 교양도 쌓고, 선생님과 친분을 쌓는 것. 세미나라는 환경은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 주었다.



신입생 세미나의 초기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길

나는 2005년 2학기에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으로 개설된 '어려운 예술의 감상, 쉬운 예술의 가치'라는 강의를 수강했다. 수업 특성상 선생님과 함께 미술관 전시, 뮤지컬 공연, 영화 등을 감상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 외에 강의실에 모여 예술에 대한 수강생들의 생각을 논하거나 그 전 시간에 함께 감상했던 예술작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신입생 세미나는 성적 평가를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일정량 이상의 지식 전달이 되어야 한다거나 성적 평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자율성 덕에 내가 들었던 신입생 세미나에서는 (소위 말하는) 고급예술에서부터 대중예술에 이르기까지, 예술이라는 분야에 속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정규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다른 수업과 달리 작품 감상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뒤풀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입생 세미나'라는 수업이 지니는 위상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신입생 세미나란 애초 정규 수업과 다른 위상을 지니고 개설된 강의이다. 그러나 이 강의가 그 색다른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1학점으로 배정된 과목인 만큼 1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할당되는데, 한 학기에 15시간 내외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배당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부족함을 느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만큼, 그에 대한 감상이나 의견을 나누는 피드백 시간도 충분히 필요했다. 그러나 5번 정도 함께 작품 감상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는 겨우 두 차례였다. 더구나 선택항으로 남겨진 뒤풀이 자리는 일찍 귀가해야 하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자리였다. 애초의 목표였던 교수와 학생들 간의 교류는 실질적인 시간 여건 상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1학점 과목에 교수와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뒷받침되거나, 2학점 정도로 학점 수를 올려 그만큼 수업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신입생 세미나는 개설된 지 겨우 2년째라, 아직 한 과목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개선할 점이 많다. 학생과 교수 간의 긴밀한 대화와 교류는 그것이 지니는 가치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그러한 교류 속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라 믿는다. 많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과목인 만큼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신입생 세미나

학기 초 많은 행사와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과 친해지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많은 기초 상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모임 횟수와 이어지는 뒤풀이는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급격하게 달라진 주변 환경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다. 아마 많은 새내기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같은 과 학우들과 함께 학부 교수님께서 하시는 신입생 세미나를 우연찮게 시작하게 되었다. 다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에 제한은 없었다. 학우들과 함께 서로의 고민을 얘기하면,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경험 혹은 들었던 이야기로 조언을 해 주셨다. 가벼운 농담을 통해서 한 바탕 웃기도 하고, 전공인 농업 문제와 관련하여 진지한 토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 식목일 행사로 선생님, 학우들과 함께 삼을 들고 학교 교정 전체를 휩쓸어 보기도 하고, 농민 신문사를 찾아가 농업 언론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그 경험 자체로도 유익한 시간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수강생과 수강생, 수강생과 교수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따뜻한 만남은 방황하던 새내기였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이야기'와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은 갈피를 잡지 못했던 머릿속의 수많은 생각들이 어느 정도의 방향과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입생 세미나를 듣지 않았다면 해보지 못했을 유익한 경험들이 많았다.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느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신입생 세미나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입생 세미나의 주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제공한다면 신입생 세미나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금전적 측면의 지원은 신입생 세미나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금전적인 부분에만 그치지 않고 보통 강의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학교에서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많은 새내기들이 신입생 세미나를 통해서 값진 경험들과 소중한 추억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신입생 세미나에 대해 모르는데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새내기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새내기들에게 학교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알찬 수업, 신입생 세미나를 기대해 본다.



교수님이나 타과 학생들과의 지적 교류가 더욱 많아지기를

내가 들었던 '현대경제의 이해'라는 세미나는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에 미리 게시판에 논문과 Economist 기사 등의 자료를 올리시면, 학생들이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보고서에는 자신이 흥미롭게 읽은 자료에 대한 요약과 감상, 그리고 선생님께서 해당 주제에 대해 미리 제시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야 했다. 세미나 시간에 학생들이 각자 보고서를 읽고, 의견을 제시하면 선생님께서는 하나하나 코멘트를 붙여 주셨다.

신입생 세미나를 들으며 좋았던 점은, 위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각 경제 문제에 대해 나만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관계의 경우, 솔직히 그 이전까지 무관심했었기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기사나 논문을 읽어 보면서 현실적 감각을 키우고 동시에 보다 논리적인 시각을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세미나를 하는 친구들의 배경상식이 풍부해서, 친구의 의견을 통해 새로 배우는 것이 많았다. 학부와 과를 넘어서 좋은 친구를 사귄 수 있었던 점이 신입생 세미나의 큰 장점이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른 근거를 대며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시각과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모든 학생이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평소 멀게만 느껴지던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깊은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세미나가 끝난 뒤 갖는 선생님과의 저녁식사는 거리감을 좁히는 데 더욱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그 때의 즐거움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세미나 시간을 제외하고 선생님과 혹은 학생들 간에 교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소속이 다양하고 모두가 제각기 스케줄에 바빴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또한, 강의실이 수강생 정원에 비해 너무 컸다. 경제학부 세미나실에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10여명 밖에 안 되는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기엔 불편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입생 세미나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세미나가 대개 격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강의실을 예약하기 불편한 면이 없지 않다고 알고 있다.

이런 약간의 불편만 보완된다면 신입생 세미나는 선생님, 타과 학생들과 지적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